

COMMENT
Industry

Analyst

김도하

doha.kim@sk.com

02-3773-8876

보험

책임준비금 적립 방안 발표: '경과조치' 언급에 의미가 있다

금융당국,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(LAT 강화,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등)을 발표. LAT 강화는 할인을 하향조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. 상장 보험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. 그보다 금융당국에서 K-ICS에 대한 '경과조치'의 검토 및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판단.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, 경과조치는 K-ICS 도입에 따른 보험업종 자본 우려를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함

금융당국,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확정

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 2 차 회의를 통해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을 확정함. 방안의 내용은 크게 1)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(Liability Adequacy Test, 이하 LAT) 제도의 강화와 2) 3-Pillars를 토대로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임

1) LAT 제도 강화: LAT는 반기마다 시행하는 평가로, 보험부채를 특정 할인율로 평가하고 현재 책임준비금 대비 결손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. 평가 할인율은 현행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 기초하나, 2017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'무위험수익률+유동성 프리미엄'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. 이 경우 투자수익률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기존 대비 평가 할인율의 하락폭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, 투자수익률이 부진했던 보험사는 할인율이 상승할 수 있음. 단 결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적립액의 일부는 감독기준상 가용자본으로 인정돼 RBC 비율 하락 부담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. 향후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적용 할인율 수준은 바뀔 수 있으나, 장기금리의 우상향이 나타난다면 LAT 강화에 따른 상장 보험사(특히 손해보험사)의 준비금 추가 적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

2) 3-Pillars: IFRS17 체계에 상응해 감독체계를 리스크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. 양적규제(Pillar 1)로써 신 RBC(가칭 'K-ICS')로 전환하고, 질적규제(Pillar 2)로써 경영실태평가를 보다 고도화하며, 시장공시(Pillar 3) 요건을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. 세부방안은 차차 확정될 전망이다

'경과조치' 언급에 의미가 있다.

LAT 제도 강화는 지난해에도 수 차례 언급되었으며, 오히려 시행시기가 2017년 말로 연기된 것임. 또한 상장 보험사(특히 손해보험사)는 결손금 발생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며, 발생하더라도 적립액의 일부는 RBC상 자본으로 인정되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

그보다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K-ICS에 대한 '경과조치'의 검토 및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판단임.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유럽의 감독기준(Solvency II)에서 제시된 경과조치가 준비금 전입 또는 할인을 적용에 있어 16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, 경과조치의 언급은 K-ICS 도입으로 인한 업종의 자본 우려를 경감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

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(LAT) 개선방안 내용 (2017 년 말 적용 예정)

항목	내용
할인율	무위험수익률+유동성 프리미엄 (단 2017년~2019년 3년에 걸쳐 단계적 조정) (현행 LAT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+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)
자본인정	추가적립액 발생시 일부를 감독기준상 가용자본으로 인정 (2017년 적립액의 90% 인정 → 2018년 80% → 2019년 70% → 2020년 60%)
자본확충 지원	위험관리 목적으로 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 (7월 중 선제적 개정)

자료: 금융위원회, SK 증권

3-Pillars 시스템 도입 (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)

항목	내용
Pillar 1 (양적규제)	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(가칭 'K-ICS') 도입
Pillar 2 (질적규제)	IFRS17에 부합하게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,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
Pillar 3 (시장공시)	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보험사 공시를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

자료: 금융위원회, SK 증권

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

… (전략)

“더 철저한 영향 분석과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하되
업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함

‘21 년 회계기준과 리스크 감독제도가 동시에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
급격한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경과 조치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할 것임”

(후략) …

자료: 금융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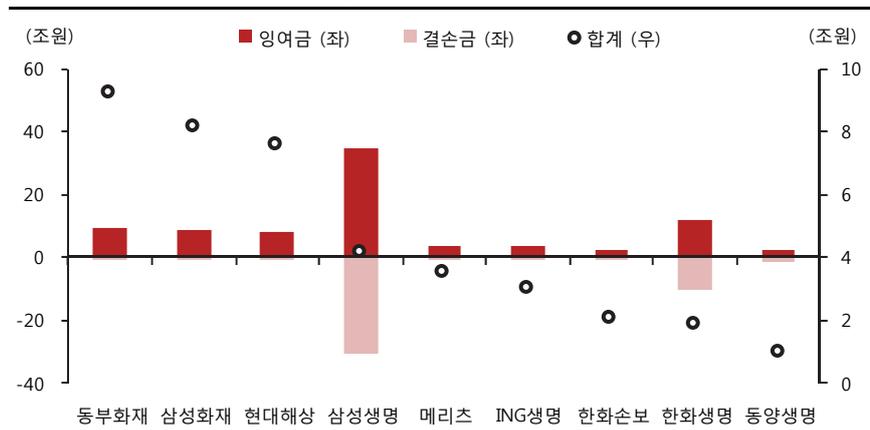
주요 상장 보험사별 2016 년 말 LAT 결과 양수는 잉여금 음수는 결손금을 의미
 할인을 하향 시 합계 (현재 잉여상태) 금액의 축소가 예상되나, 결손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

(단위: 십억원)		삼성생명	한화생명	ING생명	동양생명	삼성화재	동부화재	현대해상	메리츠화재	한화손보
금리확정형	유배당	(22,731)	(7,116)	(40)	(1,172)	(60)	(61)	(401)	(7)	(27)
	무배당	(7,189)	(2,712)	1,482	572	(471)	3	(183)	135	(55)
금리연동형	유배당	(577)	(336)	(334)	(9)	105	96	38	5	12
	무배당	25,470	7,386	478	1,063	7,897	8,960	7,846	3,267	1,980
기타*		9,192	4,650	1,414	542	643	208	237	77	112
합계		4,165	1,871	2,999	996	8,114	9,207	7,538	3,479	2,022

자료: 손해보험협회, 생명보험협회, SK 증권

주: *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, 손해보험사는 일반 및 자동차보험

주요 상장 보험사별 2016 년 말 LAT 결과



자료: 손해보험협회, 생명보험협회, 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김도해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 판단 4 단계(6 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